

朝鮮學報

第百六十三輯

平成九年四月

論 說

- 藤 本 幸 夫 朝鮮書誌学の諸問題…………… 1
 鄭 萬 祚 朝鮮朝の書院に関する若干の問題……………21
 平 木 實 訳
 小 野 尚 美 李光洙『無情』を読む……………43
 趙 義 成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1)

研究ノート

- 丸 田 孝 志 「漢語+になる」の用法と特徴
 林 憲 燦 —韓国語との対応関係を中心に—……………(37)

書 評

- 原 武史著『直訴と王権——朝鮮・日本の
 「一君万民」思想史』：月 脚 達 彦…………… 231

彙 報

- 近着寄贈交換図書目録・会員消息…………… 243

CHOSEN GAKUHO

*Journal of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No. 163 April 1997

Articles

- Fujimoto Yukio: Various Problems in Korean Bibliography …… 1
 Chung Man-jo,
 Translated by Hiraki Makoto: Some Problems of Sōwōn (書院)
 in Chosōn (朝鮮) Dynasty……………21
 Ono Naomi: Reading I Gwang-su (李光洙)'s
Mujōng (無情: *The Heartless*)……………43
 Cho Eui-sung: On the Word-Combination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in Modern Korean……………(1)

Reports

- Maruta Takashi & Im Hoen-chan: Uses &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
 Words + *ninaru* (になる)"
 —From the Comparative
 Viewpoints with Korean—……………(37)

Reviews

- Direct Petition and Regal Power* —A History of the Thought
 "One Emperor over the Populace" in Korea and Japan…………… 231

Miscellanea

- Titles of Books & Magazines Recently Received
 Transitions of the Members…………… 243

Published by

CHOSEN GAKKAI

The Academic Association of Koreanology in Japan
 Address: Tenri University

朝 鮮 学 会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趙 義 成

【要旨】 本稿は、ロシアにおいて展開された単語結合論、とりわけ旧ソ連科学アカデミーの単語結合論に基づいて、現代朝鮮語の単語結合の設定を試みたものである。まず、ロシアの単語結合論を分析し、これをもとにした南北朝鮮の文法論と日本で研究に簡単に触れた後、単語結合論を実際に現代朝鮮語に適用し、併せてこの理論に立脚していかなる文法記述が可能であるかを提示しようとする。

本稿における考察によって、現代朝鮮語には単語結合を形成する以下のような単語付加的従位的結びつきが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

- a) 客体的結びつき b) 主体的結びつき c) 規定的結びつき
- d) 状況的結びつき e) 補充的結びつき

また、現代朝鮮語の単語結合を設定するにあたり、次のような問題点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 1) 陳述性をいかに設定すべきか
- 2) 単語結合以外の統辭論的単位をどのように設定すべきか
- 3) 非単語結合的な状況語をどのように処理すべきか

なお、単語結合と密接な関連をもつものとして名詞の格があるが、本稿では単語結合論に基づいた格の記述の方法を簡単に提示する。

単語結合論は格の意味を分析するのに貢献するのみならず、主要な統辭論的単位として多大な意義を持ち、更には名詞分類や動詞分類などの語彙分類にも少なからぬ貢献をするであろうと信じる。

0. 머리말

본고는 러시아에서 전개된 단어결합론, 특히 구 소련 과학원의 단어결합론에 기초하여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의 검토하는 데 앞서, 우선 러시아의 단어결합론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의 문법론과 일본에서의 연구를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단어결합론을 실제로 현대한국어에 적용하여 보고 아울러 이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문법기술이 가능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어결합이란 무엇인가

1.1 문법론 중에 차지한 단어결합의 위치

러시아의 문법론은 크게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진다. 그 구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구분과 다를 바 없지만, 각기 부문에서 연구되는 대상은 서구 언어학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러시아에서 형태론이란 단어변화(словоизменение) (어형변화)와 단어형성(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조어)에 관한 학설이고, 통사론이란 문장과 단어결합에 관한 학설이다. 여기서 통사론에 착안하면, 러시아에서는 문장 뿐만 아니라 단어결합도 통사론적 단위로 인정하고 있어 단어결합이 통사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러시아에서는 단어들인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인 단어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문장과 다른 또 하나의 통사론의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2 단어결합의 정의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54)⁽³⁾ (이하 본문에서는 “60년 문법”이라고 부르기로 함)에서는 단어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은 자립적(знаменательные) 품사⁽⁴⁾에 속하는 단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⁵⁾에 의하여 구성되고, 단일하지만 분절된 어떤 개념이나 표상(представления)⁽⁶⁾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문법적 통일체(единство)⁽⁷⁾이다.”

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문법적 통일체(единство)⁽⁷⁾이다.”

“단어결합은 문장 내부에서, 그리고 문장을 통해서만 언어의 전달적(傳達的) 수단(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средства)의 체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문장 밖에서, 문장을 위한 구축재료로서 연구되는 단어결합은 단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명명적(命名的) 수단(номинативные средства)⁽⁸⁾, 대상, 현상, 과정 등을 나타내는 수단의 영역에 속한다.”⁽⁹⁾

이 설명으로부터 먼저 상기되는 단어결합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закон всемирного тяготения(만유인력의 법칙)”와 같은, 몇 개 단어로 부터 이루어지면서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군명사(群名詞)이지만, 단어결합에는 이러한 군명사 뿐만 아니라 “читать книгу(책을 읽다)”와 같이 용언을 포함한 단어들의 연결도 단어결합으로 삼는다.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이하 본문에서는 “80년 문법”이라고 부르기로 함)에서는 또한 단어결합의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단어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핵심적(혹은 주도적) 구성소와 종속적 구성소가 추출된다. 핵심적 구성소(стержневой компонент)는 자신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의하여 어울림을 미리 결정하는, 문법적으로 주도적인 단어이며, 종속적 구성소(зависимый компонент)는 문법적으로 종속된 단어의 형태이다.”⁽¹⁰⁾

여기서, 단어결합은 몇 개 단어가 그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도적 단어에 어떤 단어의 형태가 종속하는 식으로 어울린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신문과 잡지”와 같은 단어의 병렬은 단어결합으로 삼지 않는다.⁽¹¹⁾

1.3 단어결합을 형성하는 단어들의 어울림

문장 내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어가 어울리고 있는데, “80년 문

법”에 의하면 문장 내에는 (1) 단어부가적(單語附加的) 종위적(從位的) 어울림(присловные подчинительные связи), (2)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 (3) 동작의 주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의 구격과 피동분사의 어울림, (4) 상황어적인 의미의 단어의 형태와 그것들에 의해 규정받는 문장의 기타 모든 성분의 어울림이라는 네 가지 어울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어울림은 문장 내에서의 통사론적 위치(синтаксическое место)에 의하여 조건지어진 어울림인데 (1)은 단어의 통사론적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어 그 자체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어울림이고 이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이 단어결합을 형성한다고 한다. “80년 문법”에서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에 관해서 해설한 부분을 아래에 인용한다 :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이란 자립어의 특성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며, 문장 중의 자립어의 통사론적 위치와 상관없이 실현되는 어울림이다. 자립어 그 자체는, 언어에 작용하는 규칙에 의하여 그것 자체를 위하여 다른 언어의 형태를 확대사(擴大辭)(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로서 선택하고, 그렇게 형성된 기초적인 단어 연결과 어형 연결에서 주도적 구성소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 따라서 단어는 통사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단어 читать(읽다)는 그 모든 형태(читаю(읽는다), читал(읽었다), читая(읽으면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속적인 다른 단어들의 형태를 자신에 연결시킬 수 있다: читать книгу(책을 읽다), читать с интересом(흥미를 가지고 읽다), читать медленно(천천히 읽다) 등. 단어 письмо(편지)는 чужое письмо(남의 편지), письмо другу(또 к другу도)(친구에게의 편지), письмо от матери(어머니로부터의 편지), письмо карандашом(연필로 쓰인 편지) 등과 같이 종속하는 형태와 연결된다. 이 어울림들은 단어 그 자체의 특질을 기초로 하여 실현되어 그들의 특질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다.”

이러한 어울림은 문장성분이나 어순 등 문장을 만드는 규칙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추출할 수 있다

는 것이 단어결합 설정의 기본적인 근거이다.

1.4 단어결합과 문장

단어결합이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면, вечером при посторонних неожиданно поссориться с другом из-за пустяка(저녁에 남이 있는 곳에서 뜻밖에 쓸모없는 일로 친구와 말다툼하다) 등과 같이, 종위적 어울림이 복잡하게 복합된 결합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단어결합과 문장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단어결합과 문장은 엄밀히 구별된다고 강조해 왔다. “60년 문법”에서는 단어결합은 (1) 의미적으로는 언어적 교제(交際) 및 전달의 통일적인 단위가 아니며 인칭, 시제, 법성(法性)(modality)과 같은 통사론적 범주가 전형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2) 형식적으로는 억양(intonation)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장과는 다르다고 간결히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어결합이 명명적 단위인 데 반해 문장은 전달적 단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은 진술성(предикативность)에 의해 단어결합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진술성이란 객관적 법성(объективная модальность)의 의미에 의하여 형성되며 통사론적 시제와 법(mood)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문법범주이고, 이 문법범주는 많은 경우 위에서 기술한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에서 실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긴 단어들의 어울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진술성이 없으면 그것은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의 여러 가지 분류

여기서는 단어결합을 형성하는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에 관하여 “80년 문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류 중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여 본다.

2.1 단어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은 종속적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객체적 관계(объектныеотношения)⁽¹⁵⁾ : 즉, 단어에서 명명되는 동작이나 상태와, 동작이 미치거나 상태가 결부된 대상 사이의 관계. 이 관계는 폭이 넓어, 대상에의 작용 뿐만 아니라 대상에의 지향성이나 방향성도 포함된다. 예 : чинить мотор(모터를 수리하다), сердиться на сына(아들을 꾸짖다), восхищать слушателей(듣는 사람을 매혹시키다), сниться ребенку(아기 꿈을 꾸다).

2) 규정적 관계(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¹⁶⁾ : 대상, 현상, 동작, 상태, 특징이 자신의 외적 혹은 내적 성질, 특성, 속성의 측면에서 규정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특징이 지어지는 관계.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은 하위부류로 나누어진다.

i) 본래의 규정적(собственно 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관계 : 종속적 형태가 “какой? (어떤)”, “чей? (누구의)”, “который? (어느)”란 물음에 답하는 것들이다. 예 : новый парк(새로운 공원), дом отца(아버지의 집), парк у озера(호숫가의 공원).

ii) 상황-규정적(обстоятельственно-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관계 : 종속적 형태가 “как? (어떻게)”, “каким образом? (어떠하여)”, “с каких пор? (언제부터)”, “до каких пор? (언제까지)”, “где? (어디서)”, “куда? (어디에)”, “откуда? (어디서부터)”, “зачем? (왜)”, “почему? (어째서)”, “при каких условиях? (어떤 조건으로)”란 물음에 답하는 것들이다. 예 : жить в городе(도시에 살다), город ночью(밤의 도시), идти медленно(천천히 가다).

iii) 주체-규정적(субъектно-определительные) 관계 : 동작, 상태를 명명하는 명사와 동작, 상태, 특성의 주체를 명명하는 명사의 속격형 사이의 관계. 예 : приезд отца(아버지의 도착), отчаяние матери(어머니의 절망), белизна снегов(눈의 흰).

3) 정보적(情報的) 보충의 관계(отношения информативного восполнения) 혹은 보충적(восполняющие) 관계⁽¹⁷⁾ : 주도적 단어가 정보적으로 불충분한 단어일 경우에, 주도적 단어인 정보적으로 불충분한 단어와 종속적 단어의 형태 사이에 생기는 관계. 예 : закатиться смехом(깔깔 웃기 시작

하다), пахнуть табаком(담배 냄새가 나다). 이 예에서 закатиться(시작하다), пахнуть(냄새나다)란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60년 문법”에서는 보충적 관계라는 개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규정적 관계 중의 상황적-규정적 관계는 상황적 어울림에 포함되어 규정적 어울림으로부터 독립된 위치를 부여했다. 일본과 북한에서도 상황적 어울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80년 문법”의 이 견해는 비교적으로 새로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2.2 어울림의 강약

단어의 특성에 따라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은 더 의무적일 수도 있고 덜 의무적일 수도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엄밀히 한정되는데 그 의무성과 조건들에 의해서 어울림의 강약이 구분된다.

1) 강한 어울림(сильная связь)⁽¹⁹⁾ :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의 관점에서 의무적이며 주도적 단어의 목록 그 자체에 의하여 한정된 어울림. 여기서 실현되는 관계는 보충적 관계, 객체적 관계, 객체적-보충적 관계, 객체적-상황적-보충적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동사 избрать(선거하다)는 과정성(過程性)(процессуальность)이라는 동사의 의미와 그 동사의 전이성(轉移性) 즉 타동성으로 인하여 객체적 의미를 가진 종속적 형태를 요구한다. 명사 обработка(처리)는 대상성(對象性)(предметность)이라는 명사의 의미와 그 명사의 타동사인 обработать(처리하다)에의 관계로 인하여 객체적 의미를 가진 종속적 형태를 요구한다(обработка информации(정보의 처리)).

2) 약한 어울림(слабая связь)⁽²⁰⁾ : 주도적 단어가 일정한 품사에 소속함에 의해서만 예정되는 어울림. 여기서는 규정적 관계가 실현된다. 예 : новый дом(새로운 집), очень холодный(아주 좋다), ждать час(한 시간 기다리다), дом у дороги(도로 옆의 집), крышка чайника(주전자의 뚜껑), дом отца(아버지의 집).

2.3 종속적 형태의 종류와 어울림의 유형

1) 일치(согласование)⁽²¹⁾ : 종속적 단어의 형태가 주도적 단어의 형태에 성, 수, 격, 혹은 수와 격, 혹은 격에 있어서만 동화(同化)(уподобление)하는 유형. 이것에는 본래의 규정적 관계가 속한다. 약한 어울림인데도 주도적 단어가 정보적으로 불충분한 단어인 경우는 강한 어울림이 된다.

2) 지배(управление)⁽²²⁾ : 명사 사격형(전치사 없는 형태도 전치사가 붙은 형태도 포함함)이 주도적 단어에 연결하는 유형. 여기에 속하는 것은 객체적 관계, 보충적 관계, 객체적-보충적 관계, 객체적-규정적 관계이다. 객체적-규정적 관계일 경우는 약한 지배이고 그 이외는 강한 지배로 인정한다.

3) 접합(примыкание)⁽²³⁾ : 두 단어의 형태가 각각 독립된 규정을 받는 어울림. 접합에는 두 가지의 하위부류가 있다.

i) 본래의 접합 : 종속적 단어가 불변화사(不變化詞), 즉 부사, 불변화 형용사, 부정사, 비교급, 부동사(副動詞)인 어울림. 임의의 품사에 속하는 자립어가 주도적 단어가 될 수 있다. 접합에 생기는 관계는 종속적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 부정사의 접합은 객체적 관계, 보충적 관계, 상황적-규정적 관계, 부사, 부동사, 비교급의 접합은 규정적 관계, 규정적-보충적 관계, 불변화 형용사의 접합은 본래의 규정적 관계가 생긴다.

ii) 격의 접합(падежное примыкание) : 규정적 의미를 가진 명사의 격 형태가 임의의 품사의 자립어에 접합한 것. 여기서는 규정적 관계 혹은 상황적-보충적 관계가 생긴다. 예 : приехать пятого мая(5월 5일에 오다), прийти к вечеру(저녁에 오다), ложка из дерева(나무로 만든 숟가락), город на Волге(볼가 강가의 도시), впереди на шаг(한걸음 앞으로); находиться на берегу(강가에 있다), задолго до рассвета(새벽보다 더 앞에).

격의 접합은 "80년 문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이것은 그 이전의 기술에서는 지배로 취급되었다.

2.4 이중의 강한 어울림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에는 주도적 단어가 하나의 종속적 형태를 예정하는 단일한(одиночные) 강한 어울림과 아울러 이중(二重)의(двойные) 강한 어울림이 있는데, 이것은 주도적 단어가 그 어휘-문법적 특성에 의해 객체적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종속적 형태를 예정하는 타동사 혹은 그 타동사로부터 생긴 명사인 경우이다. 예 : наполнить бак водой(탱크를 물로 채우다), сорвать объявление со стены(게시물을 벽에서 떼내다), дать игрушку ребенку(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다). 이것을 이중의 어울림으로 억지로 설정한 이유는 객체적 의미를 가진 두 종속적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약한 어울림을 포함한 두 개 단어의 연결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즉 новый мост через реку(강에 놓인 새로운 다리)(두 개의 약한 어울림), ударить рукой о варьер(손으로 울타리를 때리다)(강한 어울림과 약한 어울림) 같은 어울림과 이중의 강한 어울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2.5 그룹의 문법적 주도와 종속

주도적 구성소가 분할될 수 없는 그룹인 경우가 있다. 즉 종속적 형태가 주도적 그룹에 파고드는 어느 단어에도 단독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그룹의 문법적 주도(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главенствование группы)⁽²⁵⁾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обойтись плохо с посетителем(방문객을 소홀히 대접하다)라는 어울림에서 종속적 형태 с посетителем(방문객을)는 обойтись плохо(소홀히 대접하다) 전체에 종속하기 때문에 *обойтись с посетителем(방문객을 대접하다)처럼 단독으로 종속하지 못한다.

그것과 반대로 종속적 형태가 분절되지 않거나 분절되기는 하지만 종속적 위치에서는 한 덩어리인 것이 있어, 이것을 두 격 접합의 그룹(группы двападежного примыкания)⁽²⁶⁾라고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위의 "그룹의 문법적 주도"에 대하여 "그룹의 문법적 종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 идти след в след(줄 이따가 가다), путь из лаборатории на завод(연구실에서 공장으로의 길).

3. 단어결합의 유형

3.1 자유로운 단어결합과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

자유로운 단어결합(свобод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은 단어결합에 파고드는 자립어의 독립된 어휘적 의미가 유지되는 결합이다. 많은 단어결합은 보통 여기에 속한다. 예 : читать книгу(책을 읽다), жить в городе(도시에 살다), идти медленно(천천히 가다). 한편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несвобод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은 구성소 중 하나의 어휘가 독립성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단어결합이 전체로서 개별적인 단어에 가까워진 단어결합을 말한다. 예 :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철도), дать пощечину(따귀를 때리다). 단 단어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된 단어결합들, 즉 관용구 같은 것은 문법론에서의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3.2 구성으로부터 본 단어결합

1) 단순 단어결합(прост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²⁸⁾ : 하나의 종속적 구성소와 하나의 주도적 구성소로 이루어지는 단어결합.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어울림이 속한다.

- i) 일치, 지배, 접합에 의해 형성된 단일한 어울림
- ii) 이중의 강한 어울림
- iii) 그룹의 문법적 주도나 종속을 이루는 어울림

이것들은 구성소 자체가 분절될 수도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단순 단어결합은 2항적일 수도 있고 3항적일 수도 있다.

2) 복합 단어결합(слож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²⁹⁾ : 하나의 주도적 단어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속적 단어가 연결해서 이루어진 단어결합.

3) 조합 단어결합(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³⁰⁾ : 단어결합의 복합체로, 어떤 단어결합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단어가 동시에 다른 단어결합에서 종속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 : увлеченно читать интересную книгу(재미있는 책을 열심히 읽다), лечь на диван с книгой отдохнуть часок после работы(일한 뒤에 좀 쉬려고 책을 가지고 소파에 눕다), хороший друг моего отца(우리 아버지의 좋은 친구), мечтать

согреться остатками спитого чая из жестяной кружки с пом्याтым боком(옆구리가 움푹해진 생철의 컵으로 묽은 차의 찌꺼기를 마시고 몸을 데우기를 꿈꾸다).

3.3 비고정적 단어결합과 고정적 단어결합

자유롭게 분절될 수 있는 단순 단어결합 혹은 복합 단어결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단어결합을 비고정적(非固定的) 조합 단어결합(несвязанное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이라고 부르고, 분절될 수 없는 단순 단어결합 혹은 복합 단어결합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단어결합을 고정적(固定的) 조합 단어결합(связанное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словосочетание)이라고 부른다. 많은 단어결합이 비고정적 단어결합에 속한다.

4. 남북한과 일본에서의 단어결합의 연구

4.1 남한에서의 단어결합 연구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문법이론을 도입해 본 적이 없는 관계로, 문형이나 어순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단어결합 그 자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러한 속에서 남기심(1993)은 유일하게 단어결합적인 관점을 도입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또 수 많은 용례를 언어재료로 사용해서 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 깊은 것이다.

남기심(1993)에서는 {-에}격과 {-로}격에 관하여 각각 “서술용언”과 관계되는 격과 “부가어”나 그 밖의 쓰임으로 사용되는 격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전자는 강한 어울림에 해당되며 후자는 약한 어울림 내지는 비단어부가적인 어울림에 해당된다. 전자에 관해서는 격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1) 명사의 격형태가 “필수 논항”인가 “수의 논항”인가, (2) 격형태가 화용적으로 생략 가능한가 어떤가, (3) 다른 격으로 대체 가능한가 어떤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격형태 자체 뿐만 아니라 격과 결합되는 동사에도 착안하고, 격의 의미마다 격과 연결되는 동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단어결합을 논하는 데는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반면, 문형과 단어결합의 유형을 혼동하거나⁽³³⁾ “필수 논항”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기술(객체적이거나 보충적이거나, 어울림의 강약은 어떠냐, 그룹의 문법적 주도나 종속은 없느냐 등)이 없는 등 단어결합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 동사의 기술에 있어서도 목록의 제시에 그치며 동사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

4.2 북한에서의 단어결합 연구

북한의 문법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과학원 계통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김일성종합대학 계통의 흐름이다. 먼저 과학원 계통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의 통사론은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에서 처음으로 그 전모가 드러났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에서 전개되는 문법론은 기본적으로 구 소련의 문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단어결합론에 관한 이론은 그 출발부터 소련의 그것과 크게 상이한 부분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결합”(단어결합)과 동시에 “접속”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에 의하면 “접속”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제 3의 어떤 단어에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³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깊고 넓은 바다”라고 할 때의 “깊고 넓은”이나 “노래에 춤에 연구 등”과 같이 몇 개 단어를 병렬하는 어울림을 접속이라고 불렀다.

또 하나는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을 단어결합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어의 경우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필연적으로 진술성이 생긴다고 보고 이것을 단어결합에서 제외시킨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그 사이에 반드시 진술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단어결합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견해들은 이후의 문법서에도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견해는 한국어의 단어결합론을 논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에서는 통사론을 문장에

관한 이론 그리고 단어결합과 “접속”을 합친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에 관한 이론으로 본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통사론에는 문장, “결합”, “접속”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김용구(1988)에서 크게 변하게 된다. 김용구(1988)에서는 그때까지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로 다루어진 것이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설명한 김용구(1988)의 부분을 아래에 인용한다.

“단어들의 결합관계란 상대적인 구획성을 가지는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묶어진 뜻덩이를 이루면서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구조적특성, 연결성격 및 연결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들로 갈라진다.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문법적현상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합친말, 《복합어》⁽³⁵⁾, 《단어결합체》⁽³⁶⁾, 《단어들의 결합체》⁽³⁷⁾, 《구》⁽³⁸⁾, 《부》⁽³⁹⁾ 등 모든 단위를 포괄한다.⁽⁴⁰⁾”

여기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는 여러 가지 층위의 단어들의 어울림을 통칭하는 것인데, “합친말”(합성어)과 같이 형태론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나 “구”, “부”와 같이 단어결합의 하위부류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 등 층위가 전혀 다른 것들을 모두 “단어들의 결합관계”로 보는 이 견해는 분명히 이론적 후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일성종합대학 계통은 “60년 문법”의 견해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김영환(1983)은,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을 단어결합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과학원 계통과 견해가 일치되지만, “접속”이라는 어울림을 설정하지 않고 “60년 문법”과 같이 그것을 “병렬결합”(병렬적 결합)으로 보고 단어결합의 범주에 넣었다.⁽⁴¹⁾ 그러나 소위 “접속”이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어의 병립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을 단어결합과 달리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일본에서의 일본어 단어결합의 연구

일본에서는 言語学研究会(1983)에서 “60년 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동사를 주도적 구성소로, 명사의 격형태를 종속적 구성소로 하는 어울림에 대한 일본어 단어결합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먼저 단어결합을 “对象的むすびつき”(대상적 연결), “規定的むすびつき”(규정적 연결), “状況的むすびつき”(상황적 연결)로 나누어, 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명사의 어휘적 의미에 의한 어울림의 구체적인 의미를 각각 하위부류로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록된 논문 ‘を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을격과 동사의 어울림)의 제 4장 상황적 연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떠나는 곳을 나타내는 단어결합은 てる(나가다), たつ(출발하다), さる(떠나다), とおざかる(멀어지다), はなれる(떨어지다), しりぞく(물러나다), ひきあげる(칠수하다)와 같은 동사로부터 생겨 수식 명사로 가리켜지는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を격 명사의 기능은 出處의 から격에 극히 가깝다.

923) 六時五分まえに建一郎は教育会館の事務所を出た(6시 5분 전에 建一郎은 교육회관 사무소를 나갔다)。(人・254)

925) 東京の友だちはそこで新橋をたつ(동경의 친구는 그래서 新橋를 떠난다)。(春・5)

926) ふうといって汽船がとまると、はしけが岸をはなれて、こぎよせてきた(부 하며 기선이 멈추자 거룻배가 강가를 떠나서 다가왔다)。(坊・13)

927) 三年まえに中津川をひきあげて、伊那の方へうつつっていった……(3년전에 中津川을 떠나 伊那 쪽으로 이사간……)。(夜・322)⁽⁴²⁾

言語学研究会(1983)는 어떤 격 하나의 전모를 밝히려는 시도를 했는데, 임의로 만들어낸 용례가 아니라 소설 등에서 수집한 용례를 언

어재료로 해서 분석하는 기술문법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론을 따라서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을 단어결합에서 제외했다는 점, 대상적 연결, 규정적 연결, 상황적 연결을 굳게 분류하고 중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나 혼효된 의미를 가진 것들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격형태를 단어결합으로만 처리해서 단어결합을 벗어난 격의 사용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 일본어 단어결합에 관한 연구로는, 주도적 단어가 형용사인 경우를 다룬 마쓰모토[まつもとひろたけ](1979)가 있다.

4.4 일본에서의 한국어 단어결합의 연구

일본에서 한국어 단어결합을 다룬 최초의 논문은 韓南洙(1966)이다. 이것은 북한의 소설을 언어재료로 하여 언어학연구회의 수법에 따라 {-에게}격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은 위에 든 言語学研究会(1983)와 제를 같이 한다.

격의 의미를, 단어결합에 속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한 것으로 지무라[千村哲也](1987)가 있다. 이것은 단어결합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로}격의 전체상을 제시한 최초의 논문이라서 아주 시사적이다. 또, 노마[野間秀樹](1993)는 거기에다가 단어결합의 유형도 제시한 논문으로, 단어결합론을 응용한 연구 중에서는 최신의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노마와 같은 입장에서 연구한 것으로 {-에서}격을 분석한 趙義成(1994)과 {-로}격을 분석한 陳満理子(1996)가 있다.

5.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 설정의 시도

이제부터 구 소련 과학원의 단어결합론을 현대한국어에 응용해서 단어결합 설정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전개되는 것은 결코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의 전체계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골격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현대한국어에 있어서의 단어결합론은 아직 전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여기서는

있을 수 있는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의 모습을 제시하고 아울러 그 문제점을 들고자 한다.

5.0 단어결합의 정의와 그 범위

러시아의 단어결합론에 따라 단어결합을 “자립적인 단어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부가적인 어울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법적 통일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한국어에서 단어결합이란 “책을 읽다”(“책을”이 종속적 구성소, “읽다”가 주도적 구성소), “한국의 지리”(“한국의”가 종속적 구성소, “지리”가 주도적 구성소), “아주 잘”(“아주”가 종속적 구성소, “잘”이 주도적 구성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단어결합에서는 비자립적인 단어인 전치사는 단어결합의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현대한국어에서는 후치사를 단어결합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후치사는 비자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후치사와 자립적인 단어의 어울림 그 자체는 단어결합이 아니지만, 명사의 격형태와 후치사를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어울림에서 후치사 “대한”은 앞의 명사 “사회 문제에”와 함께 종속적 구성소를 이루고 있으며 주도적 구성소인 “관심”과 어울려서 단어결합을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은 단어결합론과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결합론에서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병립적인 어울림 : “책과 노트”, “청바지에 와이셔츠”와 같은 병립적인 어울림은 단어부가적 어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결합에서 제외해야 한다. 단, 이 어울림은 “책과 노트를 산다”, “청바지에 와이셔츠를 입은 청년”과 같이 단어결합의 구성소의 위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병립적인 어울림은 단어결합과 다른 하나의 단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소위 “특수조차” : 소위 “특수조사”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첨가하

기 위한 어미로, 문장에서의 단어의 위치나 역할과는 상관없이 붙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단어결합의 형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에는 간다”라는 문장에서는 {-는}의 있고 없음에 관계 없이 “학교에 가다”를 단어결합으로 추출해야 한다.

5.1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의 분류

5.1.1 단어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

1) 객체적 관계 : 객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동작, 상태와 관련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작, 상태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대상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대상도 객체로 간주된다.

책을 읽다,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다(동작이 작용하는 객체) ; 동생에게 주다, 허리에 매다(동작이 향하는 객체) ; 재즈에 열중하다, 커피가 좋다(정서적 상태를 환기하는 객체) ; 집을 떠나다, 서랍에서 꺼내다(이탈의 객체), 등등

여기에 속하는 어울림의 특징은 종속적 단어의 형태가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타동성을 가진 동사가 주도적 단어일 경우에 종속적인 형태는 {-를}격을 취한 다거나 부차동작을 가리키는 동사가 주도적 단어일 경우에는 종속적인 형태는 {-에}격이 된다 하는 것이다. 또 주도적 단어를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종속적 단어의 종류에도 어느 정도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객체적 관계에 있는 어울림은 주도적 단어와 종속적 단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아래에 기술될 “어울림의 강약”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2) 주체적 관계 : “80년 문법”에서는 러시아어의 경우 주어와 술어의 형식적 호응에 의해서 거기에 진술성이 실현된다고 보았는데, 한국어의 경우 시제이나 법의 범주가 주어와의 문법적 호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언 자체의 형태론적인 수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어 처럼 진술성이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에 생긴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서는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을 단어부가적 종위적 어울림으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주체적 관계를 객체적 관계와 동렬

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종속적 단어가 동작을 일으키거나 상태를 갖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동생이 가다(동작의 주체), 산이 높다(상태의 주체), 학교에서 결정하다(동작의 단체적 주체), 등등

이 어휘들은 객체적 관계에 있는 어휘들과 달리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종속적 단어의 형태 및 종류를 결정하는데 별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도적 단어와 종속적 단어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

3) 상황적 관계 : “80년 문법”에서는 상황적 관계를 규정적 관계의 하위분류로 다루었지만 한국어의 경우 규정적인 유형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 관계와 규정적 관계는 분리시킬 수 있다. 즉 주도적 단어가 용언인 경우는 상황적 관계로, 체언인 경우는 규정적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상황적 관계는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분류를 설정할 수 있다.

일요일부터 일하다, 항상 따뜻하다(시간-상황적 관계); 공장에서 만들다, 서울에서 유명하다(공간-상황적 관계); 바람에 무너지다, 시험준비로 바쁘다(원인-상황적 관계); 친구와 함께 나간다(조건-상황적 관계); 포크로 먹다(동작방법-상황적 관계); 동생을 위해 아르바이트하다(목적-상황적 관계), 등등

상황적 관계에 있는 어휘들도 역시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종속적 단어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규정적 관계 : 주도적 단어가 체언인 유형이다.

노인의 손, 내 책, 모든 사람, 등등

위의 든 세 가지 관계가 종속적 단어의 의미에 의한 분류인 데 대해, 이것은 순수히 형식적 측면에서의 분류이다. 그러므로 규정적 관계는 종속적 단어의 의미에 의해 다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객체-규정적 관계 : 교과서의 편찬, 누나에게의 편지, 사무에 관한 설명, 부모에 대한 충실성, 등등

주체-규정적 관계 : 나라의 발전, 어머니의 편지, 위원회에서의 결정, 학생에 의한 보고, 등등

상황-규정적 관계 : 학교에서의 모임, 내년의 예정, 자전거로의 여행,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등등

규정적 관계에 있는 어휘들에서는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종속적 단어의 형태를 예정하는 데 덜 중요하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객체-규정적 관계이다. 이것은 “80년 문법”에서 규정적 관계가 아니라 객체적 관계로 다룬 것이다. 여기서는 어휘의 형식적 측면에서 일단 규정적 관계로 분류했는데 한국어의 경우도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한 종속적 단어 형태의 예정성이 있다면 역시 객체적 관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보충적 관계 :

의사가 되다, 바보로 간주하다, 예쁘게 생기다, 등등

주도적 단어가 확대사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 어휘들에서는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는 종속적 단어의 형태를 예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보충적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또한 기능동사 “부리다”, “치다”, “피우다” 등과의 연결(어리광을 부리다, 농땡이를 치다, 게으름을 피우다), 분리용언에서의 연결(공부를 하⁽⁴⁸⁾다, 화가 나다)도 보충적 관계에 속하는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든 여러가지 관계가 혼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객체적-상황적 관계 : 산길을 걸어간다, 붓으로 쓰다, 벽에서 떼내다; 객체적-보충적 관계 : 불을 지르다; 규정적-보충적 관계 : 학생들의 것 등등.

5.1.2 어휘의 강약

1) 강한 어휘 :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해서 종속적 단어의 형태가 크게 제약받는 어휘들이므로, 객체적 관계와 보충적 관계(혹은 그 혼효)에 있는 어휘들이 여기에 속한다.

텔레비를 보다, 의자에 앉다, 선생님께 여쭙다(객체적 관계); 의사가 되다, 여자와 같이 생기다(보충적 관계); 한국을 떠나다,

총으로 쓰다(객체-상황적 관계); 탕고를 추다, 어리광을 부리다(객체적-보충적 관계); 동경에 있다, 호텔에서 묵다(상황적-보충적 관계); 옛날 것, 한국 분(규정-보충적 관계)

2) 약간 어울림: 여기에 속하는 것은 주체적 관계, 상황적 관계, 규정적 관계에 있는 어울림인데 위에서 "80년 문법"과 달리 설명한 주체적 관계와 상황적 관계도 여기에 속한다.

내가 발표하다, 국회에서 가결하다(주체적 관계); 알몸으로 도망가다, 굉장히 비싸다, 모레 출발하다(상황적 관계); 새 나라, 오늘의 환율(규정적 관계)

5.1.3 종속적 형태의 종류와 어울림의 유형

"80년 문법"에 있는 일치는 우리 말에 없으니 어울림의 유형은 ⁽⁴⁷⁾ 지배와 접합의 두 가지이다.

1) 지배

강한 지배: 담배를 피우다, 의자에 앉다, 동생에게 주다, 주머니에서 꺼내다, 형한테서 받다, 자동차와 부딪치다, 격에 관해 연구하다, 문법에 대해 해설하다(객체적 관계); 학자가 되다, 우리 것(보충적 관계); 방에 있다, 미국에서 살다(보충적-상황적 관계); 악몽을 꾸다, 잠을 설치다(객체적-보충적 관계)

약한 지배: 총으로 쓰다(객체적-상황적 관계)

2) 접합

i) 본래의 접합: 한국어에는 종속적 위치에 설 수 있는 불변화사로 부사, 관형사가 있는데, 용언의 부사형과 수사의 관형형도 여기에 포함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부사의 연결: 꺾꺾 웃다, 꽤 빠르다, 조금 이따가; 깨끗이 지우다, 엄청나게 비싸다

관형사의 연결: 새 마을, 모든 사람, 여러 가지; 두 명, 석 달

ii) 격의 접합: 상황적 혹은 규정적 의미를 가진 체언의 격형태가 연결한 것.

여기서 자다, 오후부터 공부하다, 속달로 부치다, 만약을 위해

준비하다(상황적 관계); 서울의 다방, 내년의 활동, 과학자에 의한 연구(규정적 관계)

격의 접합과 지배의 경계는 아주 애매하다. 상황적 의미의 종속적 단어에 객체적 의미가 포함되는가 어떤가를 결정하는 명확한 지표가 없으면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구별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5.1.4 단일한 어울림과 이중의 어울림

1) 단일한 강한 어울림

밥을 먹다, 목에 매달리다, 감옥에서 탈주하다, 사건에 대해 보도하다(객체적 관계); 얼음으로 되다, 한국사람과 같이 생기다, 내 것(보충적 관계)

2) 이중의 강한 어울림: "80년 문법"에 의하면 이 어울림을 이루는 타동사는 전달, 공급, 통보의 의미를 가진 동사나 연결,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등이 있다고 한다.

꽃에 물을 주다, 친구에게 편지를 쓰다, 벽에 포스터를 붙이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 독을 물로 채우다, 이것을 그것과 결부시키다

강한 어울림이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해 단일한 어울림인지 이중의 어울림인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데 대해, 약한 어울림은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종속적 형태를 예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종속적 형태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더 이상일 수도 있다.

3) 하나의 약한 어울림

회사에서 일하다, 밤에 오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잘리다,

4) 두 개의 약한 어울림

아침에 빨리 식사하다, 매일 집에서 공부하다

5) 강한 어울림과 약한 어울림

손가락으로 밥을 먹다, 동생과 같이 야구장에 가다

5.1.5 그룹의 문법적 주도와 종속

1) 그룹의 문법적 주도 : 아래에 든 예들에 []로 묶은 부분이 주도적인 그룹이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 풍돈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나뭇가지를 [장난감으로 삼다], 방을 [사무실로 만들다], 등등

두 개 이상의 단어 전체가 주도적 구성소로 있어 종속적 형태는 어느 한 단어에도 단독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이 그룹의 주도인데, 위의 경우 “*환경문제에 있다”, “*나뭇가지를 삼다”와 같이 주도적 구성소의 한 단어가 단독으로 종속적 구성소와 어울릴 수 없으므로 이것들이 그룹의 주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룹의 문법적 종속 : []로 묶은 부분이 종속적인 그룹이다.

[3 시에서 4 시까지] 기다리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퍼지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등극하다, 등등

이 경우는 “*3 시에서 기다리다”, “*자신감을 등극하다” 식으로 종속적 구성소의 한 단어가 단독으로 주도적 구성소와 어울릴 수 없다.

5.2 단어결합의 분류

5.2.1 주도적 단어의 품사에 의한 단어결합의 분류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도적 단어의 품사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단어결합들을 설정할 수 있다.

- 1) 동사적 단어결합 : 사진을 보다, 의자에 앉다, 학생이 공부하다, 국회에서 채택하다, 빨리 끝내다
- 2) 형용사적 단어결합 : 서울역과 가깝다, 노래로 유명하다, 산이 높다, 참 곱다
- 3) 존재사적 단어결합 : 여기에 있다, 서울에 없다, 동현이가 없다, 한국에서 대회가 있다
- 4) 체언-지정사적 단어결합 : 대단히 적극적이다, 아주 열심히이다, 한국이 1 등이다, 신촌에서 난리다
- 5) 명사적 단어결합 : 그녀의 시선, 연회장 안, 이것과의 관계
- 6) 부사적 단어결합 : 하도 많이, 아주 잘, 거의 다

5.2.2 자유로운 단어결합과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

많은 단어결합은 거의 자유로운 단어결합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에 속하는 것으로는 “매운 탕”과 같은 결합이 그 예라고 하겠다. “매운 탕”이란 말을 합성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합과정을 고려하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라고 간주하면, “맵다”라는 형용사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어 있고 “매운 탕” 전체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에 반하여 “바가지를 쓰다”와 같은 단어결합은 각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결합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5.2.3 구성으로부터 본 단어결합의 분류

1) 단순 단어결합 : 여기에 속하는 단어결합은 단일한 어울림, 이중의 강한 어울림, 그룹의 문법적 주도의 어울림, 그룹의 문법적 종속의 어울림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다.

전화를 걸다, 오락에 열중하다, 누나와 함께 놀다, 너무 힘들다, 꽤 많이(단일한 어울림) ; 친구에게 편지를 부치다,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다, 벽에다 쪽지를 붙이다(이중의 강한 어울림) ; 그녀를 여동생으로 삼다, 작업에 흥미를 느끼다(그룹의 문법적 주도) ;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웃다, 펜을 무기로 싸우다(그룹의 문법적 종속)

2) 복합 단어결합 : 여기에 속하는 단어결합은 하나의 주도적 단어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어울림이 이루어진 것들이다. 바꿔 말하면 두 개 이상의 단순 단어결합이 하나의 주도적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어결합이다.

전화를 몇 번 걸다, 정신없이 오락에 열중하다, 누나와 함께 공원에서 놀다(두 개의 단일한 어울림) : 주마다 친구에게 편지를 부치다, 아버지한테서 용돈을 많이 받다(단일한 어울림과 이중의 강한 어울림) ; 1시부터 2시까지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두 개의 단일한 어울림과 그룹의 문법적 종속) 등등

3) 조합 단어결합: 하나의 단어가 어떤 단어결합의 주도적 단어이자 다른 단어결합의 종속적 단어가 되는 유형의 단어결합으로, 여기에 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의 단어결합이 있을 수 있다.

아버지의 카메라를 쓰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다, 친구한테서 역사에 관한 책을 빌리다, 이번주 토요일에 시청에 가다, 신림동의 당구장에서 매일 당구를 꽤 많이 치다, 등등

6. 단어결합 설정상의 문제점

6.1 진술성에 관한 문제점

중전의 단어결합론은, 러시아의 연구든 북한의 연구든, 그 표현방법이냐 상이하지만 진술성이 있으면 그것을 문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울림에 과연 진술성이 있는가 어떤가가 단어결합을 설정하는 데 큰 문제가 된다.

먼저 문제가 되는 어울림은 역시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 소위 “진술적 어울림”이다. 위 분류에서는 그것을 일단 단어결합으로 삼았는데 진술성의 설정방법에 따라서는 단어결합으로부터 제외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위 “진술적 어울림”을 단어결합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예도 있긴 하다.

○ 영서는 그 사실에 별로 흥미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김향숙/침묵의 바다 180)

이 어울림은 “없다”에 존재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가 희박하고 “흥미가 없다” 전체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자유스러운 단어결합에 속하는 것이다. 만약에 러시아의 이론에 따라 주어와 술어 사이에 생기는 진술성을 설정하려면, “흥미”와 “없다” 사이라기보다도 “영서는”과 “흥미가 없다” 사이에 생긴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이 경우 “사실”이라는 격형태는 “없다”에 단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가 없다” 전체에 연결한다.⁽⁴⁸⁾ 즉 “흥미가 없다”를 주도적 구성소로 하는 그룹의 주도이다. “-에 흥미가 없다”라는 형식이 문장을 떠나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흥미가 없다”를, 진술성을 가진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격과 용언의 어울림은 그 구조 자체는 진술성이 없는 단어결합으로 인정하고 진술성은 또 다른 문법적 절차(예를 들어서 소위 특수조사 {-는}을 붙이는 등)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위와 같은 소위 “이중주어문”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단어결합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단일주어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언의 관형형과 명사의 어울림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형형“-는”, “-ㄴ”, “-던” 등에 진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러시아어의 경우, 관형형에 해당하는 형동사(形動詞)는 현재시제와 과거시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어부가적인 위치에 올 수 있다, 즉 단어결합의 구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여,⁽⁴⁹⁾ 형동사가 시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술성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대 한국어 역시 관형형에 시제적인 대립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진술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물론 진술적 어울림이든 관형형이든 이 문제의 해결에는 진술성에 관한 연구가 더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6.2 비종속적인 어울림에 관한 문제점

단어결합의 구조가 주도적 구성소에 종속적 구성소가 어울린 종속적인 구조인 이상, “책과 노트”, “1 시에서 2 시까지”와 같은 구조는 단어결합으로 삼을 수 없다. 러시아에서는 한때 등위적 단어결합을 설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0년 문법”에서 이러한 구조를 그룹의 문법적 주도 혹은 종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5.1.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다.

○ 여기 그림에서 사건 1에서 사건 6까지가 보조사건들입니다.

(趙(1994) : 39)

이 경우 “사건 1에서 사건 6까지”라는 구조가 단어결합의 주도적 구성소도 종속적 구성소도 되지 않고, 전체로서 주어가 된 예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단어결합과 같은 층위에 있는 또 하나

의 통사론적 구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3 비단어결합적인 상황어에 관한 문제점

단어결합이 아닌 어울림을 설정하는 데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어이다. 상황어는 단어결합의 종속적 구성소가 될 수 있는데 1.3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장내에서는 단어결합의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단어결합적인 상황어와 단어결합에 들어가는 상황어의 경계는 명확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상황적 어울림 그 자체가 약한 어울림이라서 주도적 단어와의 관계도 밀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단어결합적인 상황어와 단어결합적인 상황어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趙義成(1994)에서는 비단어결합적인 {-에서}격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들고 있다.

- (a) {-에서}는 사태를 가리키는 문장 앞에 온다. 따라서 주어 앞에 {-에서}가 온다.
- (b) {-에서} 뒤에 몇 개 용언이 올 경우가 많다.
- (c) 장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서}와 근거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서}의 경우이다.

또 modal 한 어미인 {-는}, {-도}가 붙은 상황어는 비단어결합적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는}에 의해 상황어가 주제화되면 그 이후의 문장성분과 대치되기 때문에 비단어결합일 가능성이 크다.

○ 한창 농촌이 궁했을 때, 마을에서는 무단가출한 소년·소녀들이 있었다. (趙義成(1994 : 47))

이 예에서는 “마을에서”란 단어가 modal 한 어미 “-는”에 의해 주제화되어 그 이후의 부분 전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마을에서는”은 비단어결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장소를 나타낼 {-에서}격은 어떤 경우에는 단어결합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결합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가진 어형이 단어결합적일 수도 있고 비단어결합적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드시 비단어결합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주장이나 태도를 나

타내는 {-에}격은 비단어결합적인 사용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

○ 내 생각에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포진정리부터 끝내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춘범(1992 : 280))

이상 본 바와 같이 단어결합을 설정하는 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남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실제 문장을 분석한 기술문법적인 연구가 더 깊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7. 단어결합의 적용

7.1 격의 의미와 단어결합

단어결합은 “주도적 구성소(주로 단어)+종속적 구성소(주로 단어의 형태)”라는 구조이지만, 종속적 구성소가 명사의 격형태인 경우에 단어결합의 유형에 따라 격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노마[野間秀樹](1993)는 {-를}격의 의미를 크게 5개로 나누었는데 자세한 분류를 하는 데는 단어결합의 유형에 기초하고 있다. 거기서 제시된 단어결합의 유형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예시한다.

- 부여동사 결합([사물]-에 ; -에다 [물건]-를) : 뜰에 잔디를 깔다, 식칼에 물을 뿌리다, 꽃병에다 꽃을 꽂다
- 전환동사 결합([사물]-를 [동작후의 사물]-로) : 백을 자기 것으로 만듦다. 노력을 생애의 할 일로 삼다,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하다
- 수여동사 결합([사람]-에게 ; -한테[사물]-를) : 운전수에게 돈 천원을 주다, 나한테 술을 사다

단어결합에 대하여 “부여동사 결합”과 같이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지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이 단어결합의 구성소에 의하여 격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趙義成(1994)에서는 {-에서}격의 의미 중 주로 기점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에서}격의 의미를 분류하는 데 주체와 객체의 관계성과 아울러 단어결합의 유형을 이용하고 있다.

주체의 출발점([장소]-에서 ([장소]-에) 자동사 이동동사) : 한국에서 오다, 마을 쪽에서 역 진입로에 들어서다

- 주체와 객체의 출발점 ([장소]-에서 ([장소]-에) 휴행(携行)동사) : 시체실에서 절단된 손을 가져오다
- 객체의 출발점 ([장소]-에서 ([장소]-에) 타동사 이동동사) :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다
- 주체의 이탈점 ([장소]-에서/-를 이탈동사) : 그물에서 벗어나다
- 객체의 이탈점 ([장소]-에서 [물건]-를 탈취동사) :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 달력에서 1월 1일을 찾아내다.

위에 든 예와 같이 단어결합의 유형에서 격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보통 객체적 관계나 보충적 관계 및 그 혼효관계일 경우이다. 그리고 단어결합의 유형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주도적 단어+종속적 단어의 형태”라는 형식 뿐만 아니라 주도적 단어의 종류도 한정되며 종속적 단어의 종류도 어느 정도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객체적 관계나 보충적 관계가 주도적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주도적 단어가 특정된 단어의 형태를 종속적인 형태로 예정하기 때문이다.

단어결합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또한 변이적인 어울림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형식이 다른 어울림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격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노마[野間秀樹](1993)의 “부여동사 결합”에서 {-에}격과 {-에다}격, 趙義成(1994)의 주체의 이탈점을 나타내는 {-에서}격과 {-를}격은 각각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이적 어울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격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이러한 단어결합의 유형에 기초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아가 단어결합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어결합의 유형 뿐만 아니라 단어결합을 구성하지 않은 격의 의미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7.2 어휘-문법적인 단어의 class 와 단어결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체적 관계 및 보충적 관계가 생기는 단어결합에 있어서, 주도적 단어는 그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하여 종속적 단어

의 형태를 예정하는데, 바꿔 말하면 그러한 단어결합에 있어서는 주도적 단어가 어휘-문법적 의미의 관점에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에 기초하여 주도적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韓南洙(1966)를 비롯하여 지무라[千村哲也](1987), 노마[野間秀樹](1993), 趙義成(1994), 陳滿理子(1996), 그리고 일본어 단어결합의 연구인 言語學硏究會(1983) 등은 격의 의미를 밝히는 동시에 주도적 단어로서의 동사의 분류도 시도하고 있다. 또 주도적 단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종속적 단어의 분류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趙義成(1994)에서는 {-에서}격이 주체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에서}격형의 체언은 단체명사로 규정했다.

단어결합론에 기초한 단어의 어휘-문법적 분류는 단어결합의 유형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aspect 등 다른 문법범주와의 관계도 시야에 넣으면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단지 어휘를 분류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어휘와 문법의 관련성을 더 뚜렷하게 그려낼 것이며 통사론을 비롯한 문법의 기술을 더 세밀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8. 마무리

지금까지 러시아어 단어결합론을 고찰하고 한국어의 단어결합을 검토했지만,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1) 현대한국어에는 아래와 같은 단어부가격 종위적 어울림을 설정할 수가 있다.
 - a) 객체적 어울림 b) 주체적 어울림 c) 규정적 어울림
 - d) 상황적 어울림 e) 보충적 어울림
- 2) 단어결합을 설정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 a) 진술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 b) 단어결합 이외의 통사론적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 c) 비단어결합적인 상황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단어결합을 둘러싼 문제점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밝혀질 것이지만 다양한 단어결합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시도된, 논자의 자의적인 작례(作例)에 의거한 연구방법이 아니라 풍부한 언어자료를 사용한 분석, 즉 언어사실에 입각한 연구가 꼭 필요할 것이다. 확고한 언어사실에 입각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분석해서야 단어결합이라는 광대한 분야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註

- (1)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의 번역어로서 본고에서는 간노[菅野裕臣](1990, 1990-1)의 일본어역에 따라 “단어결합”을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어의 단어결합을 다룬 言語学研究会(1983)에서는 “連語”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 (2)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 : 5) 참조.
- (3) “60년 문법”의 단어결합론은 비노그라도프(В. В. Виноградов)의 이론의 영향을 농후하게 받고 있다. 비노그라도프는 러시아어 단어결합론을 처음으로 정리, 체계화한 사람이며, 이 시기의 단어결합론은 그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言語学研究会(1983)도 그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 (4) 자립적 품사란 Nomen(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부사를 이른다. 이것에 대하여 비자립적 품사가 있는데 이에선 전치사나 particle 따위가 속한다.
- (5)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러시아어로부터 번역된 술어로, 그 사용을 엄밀하게 구별한다. 번역어는 간노[菅野裕臣](1990, 1990-1)의 일본어역에 의거했다.

결합(сочетание) : 단어결합 그 자체를 가리킨다. 또 “결합하다”는 “단어결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결(соединение) : 어떤 단어가 단어결합의 주도적 단어로써 다른 단어와 어울리는 것.

연접(присоединение) : 어떤 단어가 단어결합의 종속적 단어로써 다른 단어와 어울리는 것.

어울림(связь) : 결합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단어들이 서로 맞물리는 것.

- (6) 단어결합이 자립어끼리의 어울림인 이상 “전치사+명사 자격형”과 같은 형식은 단어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치사+명사 자격형”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 즉, 전치사는 어디까지나 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 (7)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 : 6) 참조.
- (8) 대상(предмет)이라는 단어를 본고에서는 “언어 외적인 사물 일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동작이 미치는 대상인 객체(субъект)와 구별하기로 한다.
- (9)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 : 10) 참조.
- (10)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79) 참조.
- (11)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에서는 병렬적인 단어의 어울림을 단어결합으로 삼아서 이것을 “병렬적 단어결합(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очинительные)”이라고 불렀지만, 이 견해는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에서 부정된 셈이다. 또 북한의 문법서에서는 이러한 어울림을 “접속”이라고 부르고 단어결합과는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고 4.2를 참조하라.
- (12)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14) 참조.
- (13) 이미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에서 “단어결합과 문장은 질적으로 다른 통사론적 범주”라고 단언하고 있다.
- (14) 러시아어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술어의 시제형식이나 범형식이 주어와의 호응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주어와 술어의 어울림을 진술성을 이루는 어울림으로 삼은 것이다. 러시아어는 “Я студент(나는 학생이다)”와 같이 직설법 현재를 나타내는 copula를 보통 사용하지 않아서 주어와 술어의 형식적 호응이 없고 또 일어문(一語文)과 같이 주어와 술어를 갖추지 않는 문장도 있기 때문에, 진술성의 설정에 있어서 감히 “형태론적”이 아니라 “통사론적 시제와 범의 체계”라고 한 것 같다.
- (15)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18) 참조.
- (16)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18-19) 참조.
- (17)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19) 참조.
- (18) 정보적으로 불충분한 단어란 “명명의 일정성과 일의성(一義性), 표시의 완전성을 보충하는 확대사를 반드시 요구하고, 절대적으로, 즉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단어의 형태 없이는, 확대사 없이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 바

뛰 말하면 “자신의 어휘적 의미 때문에 내용적으로 해명하는 정보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종속적인 형태를 반드시 요구하고, 실제로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가리킨다.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16) 참조.

(19)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0) 참조.

(20)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0) 참조.

(21)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0) 참조.

(22)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1) 참조.

(23)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1) 참조.

(24)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2) 참조.

(25)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3-24) 참조.

(26)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24) 참조.

(27)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80-81) 참조.

(28)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81) 참조.

(29)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82) 참조.

(30)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82) 참조.

(31)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82) 참조.

(32) 남기심(1993)에서는 “연어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言語學硏究會(1983)와 지무라[千村哲也](1987)에서 사용된 용어로, 남기심(1993)은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3) 남기심(1993)에서는 전편에 걸쳐 “자동사 문형”, “타동사 문형”과 같은 기술이 있지만, 이것들은 문장의 유형이 아니라 단어결합의 유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격은 “서술용언”과 관계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장과 단어결합을 혼동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서술”은 격의 의미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4)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 : 17) 참조.

(35) 복합어란 “이미 합친말로 된 단위에 다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복잡한 하나의 뜻덩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가리킨다. 김용구(1986 : 80) 참조.

(36) 단어결합체란 본고에서 단어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나의

일터”, “공장에서 온 청년”과 같은 예가 제시되고 있다.

(37) 단어들의 결합체란 “대한” 등의 후치사를 포함한 단어결합을 가리킨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지향”과 같은 예가 제시되고 있다.

(38) 구(句)란 “단어들의 결합관계가 《주어+술어》(정확하게는 《체언주격형+용언서술형(또는 서술적대상형)》)의 구조를 가진 문장의 구조적단위”를 가리킨다. 김용구(1986 : 99) 참조.

(39) 부(部)란 “《체언주격+용언서술형》 또는 그와 등가적인것으로서 서술성을 가진 《의존어+주도어》의 구조가 아닌 결합전일체, 즉 서술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어결합 또는 단어접속 및 단어병립 등의 전일체”를 가리킨다. 김용구(1986 : 111) 참조.

(40) 김용구(1986 : 79) 참조.

(41) 여기서 제시된 결합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는 본고에서 채택한 술어를 사용해서 다시 옮긴 용어이다.

1) 단순결합

(1) 매입결합(종위적 어울림)

- ① 주자적 결합(주체적 결합)
- ② 객자적 결합(객체적 결합)
- ③ 인용적 결합(인용형을 포함한 어울림)
- ④ 상황적 결합
- ⑤ 규정적 결합

(2) 벌림결합(등위적 어울림)

- ① 합침결합(and 형의 어울림)
- ② 맞섬결합(but 형의 어울림)
- ③ 가림결합(or 형의 어울림)

3) 확대결합

- (1) 확대매입결합
- (2) 확대벌림결합
- (3) 확대연합결합(매입결합과 벌림결합의 복합체)

(42) 言語學硏究會(1983 : 144-145) 참조.

(43) 후치사란 체언이나 용언의 직후에 오는 부속적인 단어를 가리킨다. 인구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관하여/관한”, “의하여/의한” 등이

이에 속한다. 간노[菅野裕臣](1988 : 1009) 참조. 용언 뒤에 오는 후치사는 용언 접속형(부동사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언 뒤에 오는 후치사는 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치사가 격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상 이것을 단어결합론의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4) 러시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κ+여격”이라는 구조는 “전치사 κ가 붙은 여격”이라고 기술된다. 이 기술법에 따르면 “사회문제에 대한”이란 구조는 “후치사 {대한}이 붙은 {-에}격”이라고 기술되는 셈이다.

(45) 소위 “특수조사”는 단어결합론이 아니라, 통사론의 또 하나의 부문의 구문론(構文論)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46) 분리용언이란 구성요소 사이에 격어미 등이 삽입되어서 마치 두 단어처럼 되는 용언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용언 “존경하다”는 “존경”과 “하다” 사이에 어미가 삽입되어 “존경을 하다”, “존경은 하다”와 같이 두 단어처럼 된다. 간노[菅野裕臣](1988 : 1033) 참조.

(47) 격을 표시하는 요소를 하나의 단어, 즉 조사로 보면 한국어에는 지배라는 유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격을 표시하는 요소를 일단 체언의 어미로 보는 입장에서 지배를 인정하기로 한다.

(48) 남기심(1995)에서는 “사실에 흥미가 없다”와 같은 경우, “흥미”가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이 단독으로 “흥미”에 연결할 수 없는 이상 이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49)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 457) 참조.

(50)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를 비롯해서 북한의 문법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접속”이라 불러 하나의 통사론적 단위로 삼고 있다.

(51) 한국어의 어휘 class에 관해서는 간노[菅野裕臣](1995)를 참조.

참고문헌

(1) 한국어로 쓰인 문헌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어문화어문법」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 「조선어 문법 2」 과학원 출판사
김갑준(1988) 「조선어문장론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金敏洙(1970) “國語의 격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9, 50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김영환(1983) 「문화어문장론(재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용구(1986)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사회과학출판사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백춘범(1992) 「조선어 단어결합과 단어어울림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李崇寧(1966) “助詞設定의 再檢討 —— 特히 postposition, particle 과 格과의 混合設定에의 疑義를 中心으로 하여” 「東洋文化」 5

李翊燮, 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2) 일본어로 쓰인 문헌

간노[菅野裕臣](1986-7) “中級講座” 「基礎ハングル」 1-12, 三修社

간노[菅野裕臣](1987) 東京外国語大学講義資料(未公刊)

간노[菅野裕臣](1988) “文法概説”, 「コスモス朝和辞典」 白水社

간노[菅野裕臣](1995) “朝鮮語語彙のクラスをめぐって” 「朝鮮文化研究」 2

간노 외[菅野裕臣・早川嘉春・志部昭平・浜田耕策・松原孝俊・野間秀樹・塩田今日子・伊藤英人 共編, 金周源・徐尚揆・浜之上幸 協力](1988) 「コスモス朝和辞典」 白水社

노마[野間秀樹](1990) “朝鮮語の名詞分類 —— 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學報」 135

노마[野間秀樹](1993) “現代朝鮮語の対格と動詞の統辞論” 「言語研究Ⅲ」, 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마쓰모토[まつもとひろたけ](1979) “に格の名詞と形容詞とのくみあわせ” 「言語の研究」 所収

言語学研究会(1979) 「言語の研究」 むぎ書房

言語学研究会(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趙義成(1994) “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朝鮮學報」 150

- 지무라[千村哲也](1987) 「現代朝鮮語の格語尾[-로]について」東京外国語大学
卒業論文(未公刊)
- 陳滴理子(1996) “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単語結合論の観点から” 「朝
鮮学報」160
- 韓南洙(1966) “現代朝鮮語における格助詞-에게 (-ege)について” 「言語の研究」
所収

(3) 기타 언어로 쓰인 문헌

- Blake, B. J. (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54)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ом II, Институт
языкознания, Москва, (菅野裕臣 번역(1990-1) 「ロシア語文法2」東京外
国語大学 강의 자료, 미공간, 부분 번역)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I,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菅野裕臣 번역(1990) 「ロシア語文法2」東京外国語大
学 강의 자료, 미공간, 부분 번역)
- Золотова, Г. А. (1988) «Синтакс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 Репертуар элементарных
единиц рус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
- Клобуков, Е. В. (1986) «Семантика падежных форм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сква
- Прокопович, Н. Н. (1966)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язык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свещение», Москва
- Холодович, А. А. (1954)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Москва

朝鮮学報 第163輯

(平成9年度第1号)

平成9年4月20日 印刷

平成9年4月26日 発行

編集 朝鮮学会

代表者 植田平一

印刷 株式会社 天理時報社

奈良県天理市稲葉町80

〒632 奈良県天理市袖之内町1050

天理大学朝鮮学科研究室内

朝鮮学会

電話 天理(0743)-63-1515(代表)内線6300

振替 00990-8-10065

本学報の平成9年度の刊行については、出版費の一部として、文部省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公開促進費」の交付を受けた。